

현재 이후

우리 미술계의 2005년도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1년분 미술잡지를 검토하면서, 많은 양의 개인전과 기획전 도록을 다시 들춰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펼쳐진 듯 보이는 미술들이 가까운 과거의 반복이거나 대중문화에의 편승이어서 퇴행적이고 이완된 움직임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개별전시 하나하나와 작가의 각 작품을 볼 때는 이를 감지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전체로 놓고 보면 이는 상당히 분명해 보인다. 논쟁이나 담론을 이끌어낼 만한 기획전은 드물었으며, 젊은 세대 작가들의 개인전은 그(녀)의 동료 혹은 미술사 선배들의 작업을 전용하는 정도였고, 특히 작년부터 많이 이루어지는 중진의 초대전은 회고전의 성격들을 보였다.

특히 내가 주목해서 보는 점은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감지되는 퇴행성과 긴장의 이완인데, 이는 이제까지 썼듯이 미술의 패션화와 자본주의 경제성으로의 기꺼운 동승에 기인한 듯 여겨진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당신이 말하는 그 '내달리는 퇴행'과 '격렬한 이완'이 무엇이나는 질문이 들린다. 그것은 말하자면 미술의 아방가르디즘이나 비판성을 표면적으로 복제함으로써 애초 그것이 갖고 있었던 전위성과 긴장을 이완시켜 버리는 현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도 그랬는데, 그렇다면 현재만 퇴행과 이완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있고 있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천이 왜 요구되었으며 그것이 성취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기획이 실패로 끝난 지점에서 과거를 해체함으로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실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 또는 비판의 어법과 표현을 패션화(유행화)할 경우, 그것이 향하는 방향은 퇴행 쪽인 것이다. 그래서 비판은 급진적 혹은 내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없는 비판에 그친다. '격렬한 이완' 또한 '내달리는 퇴행' 처



배준성의 <화가의 웃> 시리즈

럼 모순화법인데, 이는 대중문화가 그렇듯이 미술이 보다 자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명멸해서 걸으로는 그 운동성이 격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감상에 침윤되어 있거나 작가와 사회적 조건·작가와 작가·작품과 담론의 문맥 간 관계가 느슨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자기 독백과 구체적 일상에 기초한 작품들은 어떤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힘이란 이제까지 미술이 주목하지 않았던 세부와 감수성을 조명함으로써 거대서사에 짓눌린 미시서사를 복원하는 힘이였다. 그러나 지금 여기의 사적 작품들은 그 힘을 풀려 나가고 개인적인 감정만이 격렬한 미술로 보인다. 해서 한 해 미술의 양상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아야 할 이 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퇴행과 이완을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기비판하고 미술의 강도를 높여가자는 입장으로 모아진다. 구체적으로는 담론이나 논쟁의 활성화, 작가와 작가 또는 작품과 작품·작가(품)와 사회적 조건·작품과 담론 간의 관계 긴밀화이다. 이는 미술계 기획전이 자본이나 유행의 논리로만 기획되지 않을 때, 작가의 작품이 '이미 있는 것'들의 참조나 자기 자신으로의 퇴각 혹은 나르시시즘으로 창작되지 않을 때, 담론이나 비평이 대중 미디어의 형식과 내용을 답습하지 않으며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황혼녘(사건이 끝난 후)에야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창안해낼 때 가능할 것이다. 🐦

‘황금시대’를 향한 여정

이나리메, 음악평론가

2005년 한 해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무수한 공연과 축제가 열렸다. 다가오는 한 해는 동시대 시각매체나 공간 예술과 함께 통합적인 장르를 만드는 작업들이 좋은 작품들로 결실 맺게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고결한 예술의 가치를 지키고, 진정한 음악의 ‘황금시대’를 꿈꾸는 새로운 음악 세상을 기대해 본다.

크로노스의 ‘황금시대’는 신화의 역사에서만 존재했던 시대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았을 법한 신화 속의 황금 시대는 고통도 느낄 수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으며, 노동도 하지 않아도 항상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던 시대였다. 민족과 문화, 예술양식은 물론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제각기 황금시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동시대의 사람들을 ‘시공간을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기계’에 태워 이런 유토피아로 보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상상해본다. 어린 아이 같은 공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까닭은 서양 음악이든 비서구 음악이든 할 것 없이 학자들이 논하는 음악의 기원을 이런 유토피아에서의 축제나 제전, 또는 제사의식 등에서 찾아보는 시각이 정설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음악의 ‘황금시대’를 꿈꾸기 위하여

공연장에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연주하는 것은 물론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것까지 음을 매개로 하는 인간의 행동은 첫조각을 몸에 지닌 채 유토피아라는 거대한 지남철을 마주하고 선 인간의 숙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곳을 향한 끝없는 끝림의 몸짓인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2005년 한 해 음악계를 정리하고, 새해 2006년 새롭게 다가올 변화를 예측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005년 한 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무수한 공연과 축제가 그것을 듣고 보는 감상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연말이 되면 입장권 판매율과 그 가운데 유료 관객 비율,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규모, 공연의 손익 관점의 성과와 같은 가시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음악 또는 공연계를 주로 결산하기에 이런 많은 공연이 계속 열린다는 것은 일단은 반길 만한 일이다.

2005년, 크고 작은 여러 공연장과 그와 연계된 몇몇 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많은 공연이 펼쳐지며 음악계는 물론 크게는 공연예술계의 한 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2~3년간 전국 각지에서 여러 공연공간이 차례로 문을 열었고, 올 한해도 쉽 없이 사업을 펼쳐나갔다. 예술의전당 음악당이 5개월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거쳐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새롭게 개관한 공연장이 마련한 개관 축제 등으로 공연은 더욱 풍성했다.

관객과 연주자 모두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고, 공연장의 기획에 대한 열의도 높았다. 집을 잘 단장하고 멋있는 잔치로 손님을 초대하여 문을 여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문을 열고나서도 계속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고 들을 거리를 손님과 끊임없이 나눌 수 있을 때, 그 집은 더욱 빛을 발하고 신명나는 공간으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안정적인 운영인력과 예산을 토대로 철저히 준비된 양질의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진 공연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말리와 바그너 열풍

2005년 한 해 특히 구스타프 말리의 교향곡이 연주회 레퍼토리로 자주 눈에 띄었다. 심지어 6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교향곡 제1번 <거인>은 서로 다른 연주단체의 의해 여섯 차례나 연주되기도 했다. 2번 다단조 <부활>과 5번 올림 다단조도 여러 지휘자들의 제각기 해석으로 선보였다. 임현정이 이끄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도 <말리 인 부천(Mahler in Bucheon)>으로 다시 한 번 말리 교향곡 전곡 연주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가 한국 초연 무대를 가졌다. 물론 독일 본토 작품은 아니었지만 공연의 흥행이나, 작품성, 고가의 입장권을 둘러싼 논란을 조금 미뤄 두고 한국 초연에 나름의 의미를 두자면 그동안 한국 바



2005년 교향곡의 돌풍을 일으킨 구스타프 말리

그녀 협회가 보여준 '바그너' 라는 작곡가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활동이 이번 마린스키 극장의 내한을 가능하게 한 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니벨룽의 반지>뿐만 아니라 그 난해함과 복잡함 때문에 유명한 바그너의 다른 작품들도 여러 음악회 프로그램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연주곡목으로 자리 잡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올 한 해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현상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 음악계에서 '말리 사이클(Mahler Cycle)'은 여러 유명 교향악단과 지휘자의 도전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켜 왔다. 이와 같은 해외 음악계의 동향, 1999년부터 시작한 부천필과 지휘자 임현정의 야심찬 전곡 연주 도전, 말리의 음악이 갖고 있는 힘과 이제야 빛을 발하는 앞선 시대감각과 더불어 우리나라만의 막강한 네티즌 파워, 이 모두가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현상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때부터 함께 자리잡아온 클래식 음악 동호회의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말리와 바그너의 열성 애호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흥미롭고 애정 어린 관점의 많은 글과 토론을 주고받으며 음악에 대한 심도 있는

해외 음악계의 동향, 1999년부터 시작한 부천필과 지휘자 임현정의 야심찬 전곡 연주 도전, 말리의 음악이 갖고 있는 힘과 이제야 빛을 발하는 앞선 시대감각과 더불어 우리나라만의 막강한 네티즌 파워, 이 모두가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현상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를 더해갔다. 처음에는 주로 독창적으로 말리를 해석하는 거장들의 음반이 화제가 되었고, 차츰차츰 공연을 통해 음악을 직접 듣고자 하는 바람들이 생겨났다. 물론 깨끗하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음반을 통한 음악에 익숙해진 청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연주자의 연주 준비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90분이 넘는 대곡들을 소화해내야 하는 교향악단의 실력과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관객의 연습된 귀는 차츰차츰 더해져 드디어 말리의 작품이 2005년 교향악단 연주 레퍼토리에서 눈에 띄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말리는 시대를 앞서간 탓에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찬사와 함께 많은 비난을 받았던 작곡가이다. 시대를 앞서간 작곡가의 작품이 우리 시대에 각광을 받고 청중을 감동케 하는 작품으로 남아 음악의 대중화 시대 흐름과 함께 연주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에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슈만 서거 150주년,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화두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주회가 기획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국가적 행사로 한 해를 준비하고 있고, 많은 독주자와 교향악단이 쇼스타코비치를 내년 연주곡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화두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는 다소 상업적으로 보이기 하나, 침체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계에 활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 두 작곡가의 음악적 업적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정보가 쏟아져 나오게 될 내년 한 해가 기대된다. 음악애호기는 이 두 작곡가를 음악의 즐거움 찾기 목록에 추가시켜 감상의 세계를 넓히고, 반면 연주자는 연주 레퍼토리의 세계를 넓혀가는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현대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조성음악의 시대로부터 모든 음들이 독립하여 각자의



현대음악의 거장 작곡가 율리우스를 기리기 위해 시작된 <통영국제음악제>

개성과 기능에 맞게 오선지를 채우는 무조음악의 시대로 옮겨갔다. 이와 같은 음악의 어법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내는 앞서가는 이 시대의 작곡가들이 계속 창작의 끈을 잡고 활동하는 것이나 그에 따른 감상자들의 반응은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말리나 바그너보다 더 난해하고 가끔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불리어질 만큼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기 힘든 현대음악 연주회가 자주 열렸다. <율리우스 10주기 추모 행사>와 <통영국제음악제>, 그리고 같은 시기 서울에서 열린 <작곡가 진은숙의 음악세계> 등이 여론의 관심과 함께 호기심 많은 청중들에게 현대음악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했다. 동시대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뜻있는 앙상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서서히 대중을 향하고 있으며, 청중들도 이러한 '새로운' 소리를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 가지 예로 현대음악 연주를 주로 하는 한 앙상블의 경우 정기 공연 때마다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유료 관객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애호가들의 현대음악에 관심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화가 다원화되고 개인의 개성과 기호가 인정되고 중요시되는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생활의 하나로서 파

격과 실험, 도전이라는 특징을 가진 현대음악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창작 음악계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대음악이 더 이상 불협과 파격의 '새로운' 소리가 아니라 탐구를 통해서 '찾아봐야' 하는 소리로 여겨지는 시기가 찾아온 듯하다. 또한 최근 한국의 젊은 작곡가 사이에서 화두로 부각되는 다양한 어법과 기법에 의한 자유스런 음악들이 작곡가 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드러내어 창작에 더욱 더 힘이 실어주었으면 한다. 또한 다가오는 한 해는 동시대의 시각매체나 공간예술과 함께 통합적 장르의 작업이 좋은 작품으로 많이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양대 교향악단의 지각변동

2005년은 우리나라 양대 교향악단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한 해였다. 서울시교향악단이 재단법인화 되어 정명훈을 음악고문에 위촉하고 새롭게 오디션을 실시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다. 현재로서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6년에는 정명훈이 음악감독으로 취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향악단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첫 기획연주곡 <베토벤 재발견> 시리즈를 내놓았고, 서울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구청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은 예산의 85%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법인이지만 점차 독립된 재단으로 나아가 것을 표명하고 있다. 조금은 급격한 변화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르겠지만 오케스트라 한 단체를 음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키우는 데 들어가는 수많은 시간과 그 외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변화의 모습을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KBS 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 문제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향악단이 가진 체질과 구조는 준비가 부족한 정책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또한 이 양대 교향악단의 지각변동은 아무리 모체인 서울시와 KBS가 당분간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재원을 굳건히 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다른 민간 교향악단들이 악단 존립을 위해 해오던 많은 다른 역할을 이제는 다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조금은 과장되게 말하자면 교향악단 무한경쟁의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선의의 경쟁은 연주의 질을 높이거나, 연주 횟수가 늘어나 관객에의 접근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향악단의 장기적인 발전과 음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법인화를 진행시켜야 하는지 또한 다른 민간 교향악단은 어떻게 생존을 모색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정책의 연구와 새로운 해법들이 계속 마련되어야 한다. 청중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원하고 음악가들은 그것을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와 후원의 부재로 그 실현이 좌절되는 일 없어야겠다.

2006년 음악계의 새로운 움직임

2006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긴 변화들이 음악계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음악 산업 육성책의 영향을 받은 움직임도 생길 전망이다. 2005년은 서양음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경로로 유입되어 지금까지 뿌리내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는 무엇보다 뜨겁던 한 해였다. 현실적으로 서양 고전음악은 어떤 측면으로는 음악 전 장르의 기초 이론을 제공하는 기초 학문과 같은

2005년은 우리나라 양대 교향악단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한 해였다. 서울시교향악단이 재단법인화 되어 정명훈을 음악고문에 위촉하고 새롭게 오디션을 실시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다. KBS 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 문제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재이다. 이런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예술로서의 음악활동을 함과 동시에,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초 예술로서의 음악이 음악 산업을 육성하는 데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음악 산업 분야에도 눈을 돌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꼭 해야 할 일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음악계에도 이로부터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의 잔잔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비전공자에게는 음악을 접하고 즐기는 감상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주어질 전망이며, 전공자들에게도 그들의 재능을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열리게 될 것이다. 장르간의 경계는 점점 더 허물어질 전망이다. 크로스오버나 퓨전음악도 늘어나고 대중음악 방

송에서 클래식음악이 나오고 클래식음악 전문 채널에서도 여러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오게 된다. 어려운 움직임으로 보이기에는 하지만 국악과 양악이 함께 하는 음악회도 계속 마련될 전망이다. 음악의 문이 점점 더 열리게 됨에 따라 열린 문 안에서는 향연이 펼쳐져야 하고 이와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주자, 작곡자, 음악교육자, 프로그램 기획자, 공연장 등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06년!

개인과 사회가 더욱 다양한 개성을 지니게 될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고결한 예술의 가치를 지키고, 진정한 음악의 '황금시대'를 꿈꾸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새로운 음악의 세상을 기대해본다.